

사무엘상 16.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 (삼상 14 장 24-52 절)

들어가기

지난 시간 요나단은 사울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을 찾아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힘입어 블레셋을 순식간에 두려움과 혼동 속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블레셋 병사들은 서로를 공격하며 자멸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본 사울 왕은 급히 하나님의 법계를 앞세워 블레셋을 공격하며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도망가는 블레셋 병사들을 끝까지 쫓아 전멸시킬 것을 스스로 다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음식도 먹지 말고 쫓으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우연히 발견한 꿀을 먹으며 그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배고픔과 피곤함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진영에서 취한 짐승들을 도살하여 피 채로 먹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 왕은 도망치는 블레셋 쫓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제사장 아히야의 권면대로 하나님께 뜻을 물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응답도 사울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은 이에 자신이 선언한 대로 백성들 앞에서 명령을 어긴 요나단의 죄를 추궁하려 들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 하루 종일 믿음으로 싸운 요나단의 생명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 쫓기를 중단하며, 전쟁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1.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무찌르기 전까진 그 어떤 음식물도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4-30 절)

1) 사울 왕은 명령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이런 사울 왕의 명령은 리더로써 옳은 명령이었을까요?

- ✧ 이것은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죽이는 일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자기 백성의 고통과 필요를 보지 못한 명령이라 할 수 있음!
- ✧ 곧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는 사울의 고집스럽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 명령이라고 볼 수 있음!

오늘도 자신의 목적만을 성취하고 자신의 명예만 바라고 지키기 위해, 수많은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한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역사를 바라며, 저들의 핍박가운데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이런 사울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들에서 흐르는 꿀을 발견하고 먹게 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27 절)

- ✧ 성경은 이 꿀로 인해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하였습니다.
 -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요나단의 '기력이 회복되었다' 는 뜻!
 - 곧 조금의 꿀로도 기력이 회복될 만큼 당시 요나단과 백성들이 지쳐 있었음을 추측!

4) 주목: 그런데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들은 요나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29-30 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 ✧ 곧 사울 왕의 조치가 결코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했다는 것!
- ✧ 혹시 우리는 살면서 이것이 정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의 권위 때문에, 혹 앞으로 당하게 될 곤란한 상황으로 인해 모른 척 넘긴 적은 없었는가?
- ✧ 요나단은 당시 사울의 아들이요 왕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자격과 위치에 올랐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정의와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2. 굶주림과 피곤함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31-35 절)

1) 그럼 당시 백성들이 어긴 율법은 무엇이었나?

- ✧ 하나님은 어떤 고기도 피 채 먹는 것을 금지! (레 17:10-14, 19:26, 신 12:15-16, etc.)

참고: 신 12:15-16.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 것이라 ’

2) 그럼, 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

참고: 창 9장 3-6 절 = ‘노아에게 하신 명령’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3) 그런데 아이러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그것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 구원의 날에 어겼다는 사실! - 이유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 배고픔 때문에!

4) 그럼 이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이라 할 수 있을까?

- ✧ 1 차적으론 백성들의 한계와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단식을 명령한 사울 왕의 책임!
- ✧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게도 동일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

- ✧ 결국 율법을 어기는 죄의 문제는 그 이유와 원인이 어떠했던 간에 범죄한 각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도 각 개인이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붙들어서 회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

5) 그런데 사울 왕은 백성들이 피 채로 고기를 먹어 율법을 어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였습니다. (33 절)

- ✧ 만약 내가 사울 왕이었다면, 백성들이 범죄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 ✧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할 것! (마 7:3-5)

참고: 시편 19편 12-14 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잘못된 편견 속에서 자신과 이웃을 판단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언제나 내 자신을 먼저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며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 6) 사울은 백성들에게 지금부터라도 피 채로 고기를 먹지 말라 경고한 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쌓은 첫 번째 제단이었습니다. (34-35 절)
- ✧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사울이 쌓은 제단은 감사제를 위한 제단이었던 것!
 - ✧ 그러나 지금 사울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면 어떤 제단을 쌓아야 할까?
 - ✧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음!

3. 사울은 백성들에게 도망하는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36-37 절)

- 1) 이런 사울의 결정은 옳은 것일까?
- ✧ 이미 굶주림과 피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백성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

참고: 디모데후서 3장 2-7 절 = 결국 사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 2) 이때 사울 왕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히야였습니다.
 - ✧ 아마도 백성들의 엄청난 죄악을 직접 보면서 제사장으로써 더 이상은 참지 못하였던 듯!
 - ✧ 결국 제사장 아히야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뜻을 묻기를 청하였습니다.

- 3)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37 절)
 - ✧ 그럼, 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을까요?

참고 : 이사야 59 장 1-2 절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 ✧ 결국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범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선행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 어떤 응답도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
- ✧ 우리도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항상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죄악은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4. 사울 왕은 즉시 이스라엘의 장로와 지위관을 모으고 범죄한 사람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앞에서 맹세하였습니다. (38-46 절)

- 1) 이런 사울 왕의 맹세는 옳은 것인가?
 - ✧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맹세하지 말라 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
 - ✧ 곧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어리석은 사울 왕의 자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게 됨!
 - ✧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먼저 자신이 공동체를 대표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 2) 그럼 사울 왕이 이런 어리석은 맹세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 ✧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않은 것이라 판단했고, 분명 누군가가 그 명령을 어겼기에 그 사람을 찾아 맹세한 대로 징계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

- 3) 그러나 사울 왕의 예상과는 달리 자신의 명령을 어겨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요나단을 사울 앞에 세우셨습니다.
 - ✧ 이에 대한 사울 왕의 반응은? 44 절 주목!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 사울 왕은 지금 아들 요나단이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명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아들 요나단의 죄를 물으려 했다는 것!

4)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하나님께서 단 한 순간도 요나단과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음을 증언하며 요나단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45 절)

✧ 이런 백성들의 증언이 의미한 것은 무엇일까?

- 결국 사울 왕의 모든 명령이나 맹세는 하나님의 뜻도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맹세도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
- 또한 하나님께서 죄없다라고 인정하시면, 그가 세상의 어떤 도덕적, 국가적 범법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인! 으로 인정된다는 사실!
- 반대로 아무리 세상의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내린 명령이나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
- 곧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앞세울 것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

5. 사울 왕은 자신의 통치기간 내내 힘있고, 용맹한 자를 보면 즉시 불러모았습니다. (47-52 절)

1) 사울 왕은 통치 초창기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47-48)

- ✧ 이것은 12 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증거.
- ✧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를 사용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2) 사울 왕의 가족은 아내 ‘아히노암’ 과 장남 ‘요나단’을 시작으로 6 남 2 녀 총 8 명이었습니다.

- ✧ 아내 ‘아히노암’의 뜻은 ‘은혜의 형제’, 아들 ‘요나단’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는 뜻!

3) 사울 왕이 자신의 통치 기간 내내 힘있는 자나 용맹한 자를 보는 데로 불러 모은 이유는?

- ✧ 표면적으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블레셋과의 싸움이 빈번했기 때문
- ✧ 그러나 신앙적/영적으로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 육신의 힘을 더욱 의지하는 사울 왕의 믿음과 신앙 자세 때문.
- ✧ 이것은 이전 사무엘과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 **생각하기:** 오늘 내용 중에 새로 깨달은 것이나 내 삶에 적용하기로 다짐하는 내용이 있다면?